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19화)

제주도 신병훈련소로 향하는 엘에스티 상륙함을 타고

3절: 인봉된 성경을 여는 주인공

- 1) 성경 속에 감춰진 구원의 비밀
- 2) 육신의 기원은 선악과
- 3) 하나님의 생사가 결린 문제

4절: 희생으로 사망을 이긴 피

- 1) 제주도 훈련병 시절
- 2) 광주 상무대 훈련소에서
- 3) 젊음을 불태운 11년의 군장교 생활
- 4) 일동 중,고등학교를 세우다

3) 하나님의 생사가 결린 문제

스물두 살의 일곱째 천사가 신학대학에 다니면서 성경을 한층 더 자세히 읽게 되었고, 성경 속에 인봉된 하나님 말씀의 뚜껑을 열어 속속히 풀어내는 실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일곱째 천사의 성경 이해와 풀이는 제삼자의 가르침을 빌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싸우는 연단과정에서 '나'라는 주체의식인 마귀 욕을 부수고 나온 성령으로 인하여 성경속의 천국 비밀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천국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것이며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원래부터 저 하늘꼭대기에 천국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았음에도 천국을 향해 찾아 올라간다고 말을 한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라는 마귀 영에게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천국의 실체인 에덴동산은 마귀의 동산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한테 점령당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무너진 사실을 아

는 자가 나타났으니, 그는 아담 이후 6천년 만에 단지와 혈통에서 출현한 일곱째 천사입니다. 이 일곱째 천사에 의해서 무너진 에덴동산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성경말씀 속에 인봉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에 의해서 에덴동산을 회복한다는 것은, 곧 일곱째 천사의 마음속에 천국을 건설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에덴동산을 회복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를 비롯한 모든 인간 개개인 자체의 주인은 몸이 아니라 '나'라는 주체의식이라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의식이 이리 가고 싶으면 몸도 따라서 이리 가게 되고 '나'라는 의식이 저리 가고 싶으면 몸도 따라서 저리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래 '나'라는 주체의식이라는 마음자리에는 하나님의 마음 곧 천당으로 존재했는데,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에 그 천당의 마음자리는 선악과라는 마귀 영한테 점령당하여 마귀의 집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각자 '나'라는 주체의식이라는 마귀 영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마귀 종노릇을 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영이 점령하여 들어올 때, 한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전멸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간 속에 하나님은 양심으로 생명으로 남게 되었는데, 그것도 마귀의 포로 하나님으로 그리고 마귀가 정욕을 부릴 적마다 소진되는 생명으로서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포로 하나님이 오늘날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지칭되고 있지만, 인간 마음의 주인으



출처: 육군 제1훈련소 정문(제주도, '제주100년', 1996, 97쪽)

로 행세를 하고 있는 '나'라는 주체의식인 마귀 영은 하나님을 포로로 잡고 마귀의 영옥(靈獄)에 가두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6천년 만에 '나'라는 주체의식이라는 마귀 욕에 갇힌 일곱째 천사의 양심(하나님의 영)은, '인간이 마귀와 하나님의 병존체로서 사랑의 영에게 사로잡힌 상태의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사실을 어썬푸레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 일곱째 천사를 신학대학에 계속해서 다니게 해서는 다시 마귀의 수렁에 빠져 '마귀 욕에 갇힌 하나님이 곧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학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나'라는 주체의식인 마귀 영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한 학문이기 때문에 마귀의 학문인 인학(人學)은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학문인 신학(神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곱째 천사의 양심(하나님의 영)이 '나'라는 주체의식이라는 마귀 영을 없앨 수 있는 지혜와 마귀의 대표적인 속성인 사망을 삼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마귀

의 프로그램에 의해 아담 이후 6천년이 차면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 시한폭탄장치를 제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사(生死)가 결린 중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천사의 신학공부를 제지할 요량으로 군대로 소환하는 영장발부라는 강령책을 사용하였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신학대학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 스물세 살의 나이로 입대하게 된 것입니다.

<4절>

희생으로 사망을 이긴 피

일곱째 천사가 스물세 살 이전까지는 사랑의 정체와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라는 사실을 알아내는 데 필요했던 연단기간이라면, 이제 스물세 살 이후부터 쉰 살까지는 사망권세 잡은 마귀를 없애버릴 수 있는 이긴 피를 키우는 데 소요될 연단기간으로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주장하셨던 것입니다.

1)제주도 훈련병 시절

일곱째 천사는 신학대학에서 편입하여 고학(苦學) 중에 갑자기 군입대 영장이 발부되면서 학교에서 공장 육군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병훈련을 제주도에서 받았는데, 그때가 가장 더운 7월과 8월이었습니다.

한창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멀리 부산에서, 그것도 학교에서 바로 입대를 하게 된고로, 집에서 면회를 올 형편도 못 되었지만, 가족들이 미처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다른 동료 가족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생사를 기약하지 못하는 석별의 눈물을 흘리며 환송하는 물결을 뒤로 보내며 제주도로 향하는 엘에스티(LST) 상륙함을 탔던 것입니다.



LST에서 하선한 소집정병들의 신병입소를 환영하는 군악대

동료는 이질에 걸려 죽고 어떤 동료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탈영도 하고, 또 어떤 동료는 구보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기도 하였습니다. 천국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훈련도 고되었지만 급식사정이 지금 같지 않아 몹시 배고픈 설움을 당하였습니다.

다른 훈련병은 가족이 면회를 와서, 훈련소 주위의 아주머니들이 파는 가래떡을 사서 먹을 수도 있었지만, 일곱째 천사에게는 그런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 떡이 너무나 먹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것을 참아야하는 연단이 가해

지는 운명 속에 힘든 마음을 달래 보고자 노래 가사를 지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제주도 좋지만 나는야 싫어 모슬포 빵고지에 고동이 울면 낮이면 앞에총에 구보를 하고 밤이면 나무반에 엎드려 뺨쳐 호랑이 같은 일등병의 눈치만 본다

일곱째 천사가 가사를 지어 당시 유행하는 유행가의 곡조에 맞춰 부르니 훈련병들 사이에 널리 유행이 되어 제주도 훈련소를 거친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당시는 전시(戰時)상태라 소위(少尉)는 전방에서 거의 다 죽어 나갔으므로 대부분의 청년들이 장교 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군 인력 담당 부서에서는 신병훈련을 마친 대학생들과 고졸자들을 모아 놓고 행정요원을 뽑는다고 공고를 하면서 희망자는 응시하라고 부추겼습니다.

그 말을 사실로 믿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응시하였는데,

일곱째 천사는 그 중에서 1등으로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300명의 합격자들을 데리고 간 곳은 전남 광주에 있는 상무대 장교훈련소였습니다. 갑작같이 속아서 원치 않는 장교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갑종 장교후보 87기로서 사병 훈련보다 몇 십 배 고달픈 장교 훈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엄동설한에 훈련을 받는 데 그렇게 추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안 추워도 영하 20도였습니다.*

박한수

21일 만에 성도(成道)하기 <5일째>

영생의 도는 딱 21일만 제대로 하면 완성이 된다. 더도 덜도 없이 오직 21일이다. 21일만 부처님을 사모하고 놓치지 않으면 부처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21일만에 성도하기'라는 글을 쓰기로 하였다. 필자는 21일만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지 자세하게 알려줄 것이다. 그대로 따라하면 누구나 부처를 이룰 수 있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 - 편집자 주

생미륵부처님의 신통력

북방불기 3천7년(서기1980년)에 생미륵불이 출현하신다는 예언대로 부처님께서 1980년 10월 15일에 성불(成佛)하셨고 이듬해 1981년 8월 18일 이 세상에 나오셔서 중생(衆生)들의 죄를 담당하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생미륵불께서 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제일성(第一聲)으로 "이 세상에는 학문이 없었다. 종교도 없었다."라고 선언하셨다. 또 "장래 이 세상에 미륵부처님이 출현하시는데 나라 이름이 계두왕(신라 탈해왕의 아들)이 다스리는 곳이다(將來之世 有佛名彌勒 出現於世 彌勒國名 鷄頭王所治處 - 증일아함경 49권)"의 말씀대로 한국에서 출현한 부처님께서는 1981년부터 5대 공약을 선포하셨는데 다음과 같다. ①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② 한국에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하겠다. ③ 한국에 여름 장마가 못 지게 하겠다. ④ 한국에 흉년들게 하겠다. ⑤ 남북한 전쟁이 못 일어나게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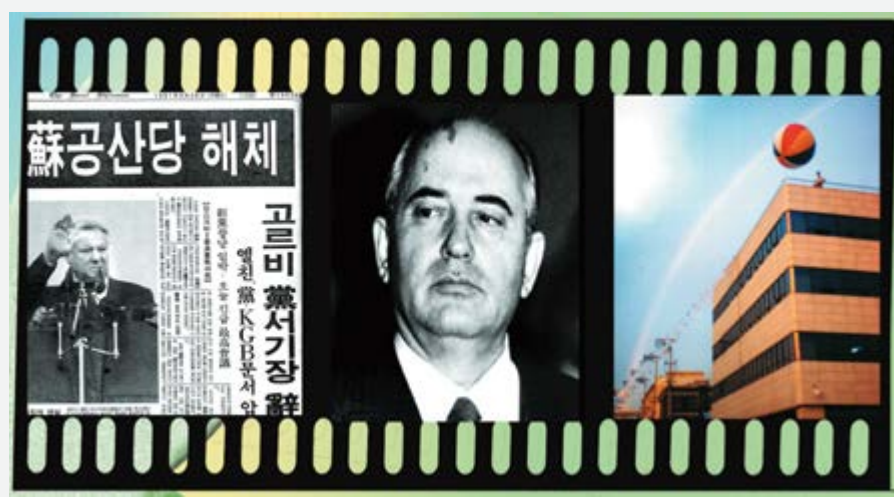
진짜가 나오기 전에 가짜가 먼저 나와 이 세상에서 판을 친 까닭에, 생미륵부처님의 진리말씀이 사람들에게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

님은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믿어달라는 방편으로 풍운조화를 행하게 되었다. 원래 성인(聖人)은 신통력이나 도술 따위를 행하여 인생들을 깜짝 놀라게 하거나 자신의 도력을 뽐내지 않건만, 부득불 부처님은 5대 공약을 내세워 올해로 38년째 해마다 약속을 지키므로 전지전능자라는 것을 몸소 알려왔다.

세계 공산주의를 없앤 이유를 설명하다

생미륵불께서 1981년부터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겠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소련을 위시한 동구권의 공산국가들은 견제하였다. 그런데 1985년에 이르자 생미륵불께서 단상에서 예뻐 도중에 갑자기 오른손의 검지를 하늘로 향해 치켜세운 채 "고르바초프 너 임마, 레이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해!"하고 명령하시는 것이었다. 명령이 있는 지 얼마 되지 않아 소련의 고르바초프 시가장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정상 회담을 가졌던 것이다. 그리고 88올림픽이 한국에서 개최되어 동구권의 공산국가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보여줌으로써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공산주의를 해서는 세계화를 할 수 없고 굶어 죽게 된다는 고르바초프의 설득에 공산국가들이 하나 둘씩 공산주의 정책을 포기하였다.

생미륵부처님께서 공산주의를 없앤 이유를 설명하신 바 있는데, 첫째,



생미륵불과 똑같이 생겼고 동강내기인 고르바초프를 내세워 공산주의를 없앤

공산주의를 없애야만 3차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3차 전쟁이 일어나면 원자탄을 막 떨어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서 없는 다음에는 생미륵불이 인간들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다. - 2003년 5월 4일 말씀 참조

둘째, 공산주의를 없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남북한 전쟁을 못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없앴다고 말씀하셨다. 공산주의가 지금까지 있다면 우리 한국에서 전쟁이 수십 번 일어났을 것이라고 한다. - 2003년 6월 15일 말씀

어떻게 공산주의를 없앨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공개하다

부처님께서 90년대에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고 난 후 10여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어떻게 공산주의를 없앨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공개하셨다. 이렇게 하늘의 기밀 즉 천기(天機)는 적절

한 때에 이르러야 발표하게 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승리제단의 구세주 생미륵불은 분신으로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이 사람의 분신이 수조만 개로 쪼개져서 공산주의자들 속에 숨겨져서 공산주의 사상을 뿌리째 뽑아서 완전히 제거해 버리니까 '나는 공산주의가 싫다'고 말을 하게 되고 결국 세계 공산국가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 2002년 8월 25일 말씀

화엄경에 보살의 수행단계를 첫 번째 환희지(歡喜地)에서 시작하여 이구지(離垢地) 그 다음에 발광지(發光地) 등 계속해서 올라가서 마지막 열 번째 법운지(法雲地)까지 소위 십지품(十地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십지품(十地品)에서 완성이 10단계 즉 법운지(法雲地)에 이른 보살은 법우(法雨)라는 진리의 비를 내린다. 다시 말해서 감로(甘露)를 내리는 생미륵부처님만이 진리의 설법을 베풀 수 있다

는 말과 동일하다.

이렇게 십지품의 마지막 단계인 법운지에 도달한 생미륵부처님께서 "감로가 부처님(하나님)의 빛이요, 또한 감로가 미륵부처님 자신의 분신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미륵불의 몸이 수억조만 개의 몸으로 쪼개져서 모든 사람들 속에 마음대로 들랑거리면서 마귀를 죽일 수 있는 분신능력이 있는고로 이런 방식으로 세계 공산주의를 없앨 수 있었고 이렇게 사람은 살려주고 마귀의 영인 공산주의 이념만 죽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진정한 구세주의 자격을 갖춘 자예요."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사람 속에, 인간성(人間性)이 있는 마귀의 영을 죽여서 없애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인 양심의 마음만 남겨놓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되는 양심의 영이 내가 될 때에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라고 이와 같이 구원 얻는 방법을 정확하게 논하셨던 것이다. - 2001년 5월 9일 말씀

마귀 영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은 믿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생미륵부처님께서 공산주의를 없애는 과정 중에 공산주의 이념이 되는 마귀 영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준 데에는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성불하여 영생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육천년간 마귀의 조종 하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생각

의 습성이 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없애버리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미륵부처님께서 이미 내다보셨던 것이다.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뭐 그야말로 우쭐해가지고 이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어 줘야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들 수가 있지, 믿지 않는 사람은 만들 수가 없어요."라고 하셨는데, 이는 성도(成道)하고자 하는 자의 미륵불을 향한 신심(信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대목이다.

공산주의를 없애는 부처님의 신통력 이외에 한국에 불어오는 태풍을 막고, 여름장마를 못 지게 하는 부처님의 위신력(威神力)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영원무공토록 벼농사 풍년 들게 되니 이아말로 이웃나라 백성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축복 받은 나라임에 분명하다.

아무리 생미륵불이 한국 땅에서 출현하셔서 천지자연으로부터 한국이 안전하라고 할지라도 남한 곳곳에 부처님의 설법을 들을 수 있는 승리제단(미륵도량)이 하나도 없고, 승리제단의 식구가 하나도 없다면 일어나지 않던 지진이 날 수도 있고, 과집이 돌아무수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다.*

박태선 기자